

■ 2013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사평

본 심사평은 분야별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문학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19(금), 16:00~19: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권영민, 김기택, 신덕룡, 임철우, 정미경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2차)은 총 6건의 신청사업 중 사업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건을 선정하였다. 해외개최 사업의 경우 선정자의 사업수행역량이 탁월하고 현지 예술계와의 교류 파급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국내개최 사업의 경우 단체의 사업추진역량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다양성이 돋보이고,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한국문학과 해외문학의 유연하고 활기찬 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2차)은 1건이 신청되었고, 레지던스 기관의 신뢰도와 수준, 지원 작가의 사업계획 충실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문학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원 결정하였다.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3차>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3차)은 3개 거점에 총 8건이 신청되었고, 이 중 3개 지역의 파견작가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의 심의는 별도의 인터뷰 심사 없이, 사업계획과 문학적 수월성 및 창작역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시에 현지 적응을 위한 언어능력과 체류경험 등도 참고하였다.

심의 결과, 우즈벡 타슈켄트 국립니자미사범대학교에는 현지대학 강사 이력이 있어 문학적 성취와 교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강희진 작가를 선정하였으며, 인도 상감 하우스 레지던시에는 다문화가정 소재 소설집필 경험이 있고,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집필하겠다는 창작계획이 뚜렷한 서성란 작가를 선정하였다. 쿠바 호세마르띠문화원에는 김경복 작가를 선정하였는데, 스페인어권 체류경험으로 현지어가 능통하다는 것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22(월), 14:00~19: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고충환, 김미진, 김영호, 이수균, 전진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시각예술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지원사업에는 총 93건이 신청되었으며 토론과 심의를 거쳐 13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에 따라 신청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제적 교류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결여된 지원사업들은 사업취지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탈락되었다. 비엔날레나 페스티벌 성격의 국제 미술제나 주요미술관의 프로젝트에 초대된 작가들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국내의 미술관이나 대안공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 강화의 실현가능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원로 개인작가들의 해외 원정전시의 경우 지원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예술위원회 지원의 상징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한 작가와 단체에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시각예술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지원사업에는 총 34건이 지원신청 되었으며 그 중 9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 기준은 무엇보다 해당 레지던스의 권위와 국제적 영향력에 중심을 두어야 하지만, 아직 이 분야의 종합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레지던스와 작가 사이의 계약조건의 충실성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역량에 선정의 무게를 두었다. 향후 지속적인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을 통해 이 분야의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국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한편 사립미술관협회가 운영하는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경우 역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2차 지원사업에 신청한 건수는 모두 28건이었으며 그 중 6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업의 특성상 노마딕 레지던스 대상 지역별 팀을 선정하게 되는데, 극지연구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극지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12건이 몰려 신청 지역의 불균형이 발생되었다.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전공이 대부분 사진과 영상매체 그리고 설치 장르에 편중되었다는 점 역시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실험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시각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20(토), 11:00~13: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류경호, 안경모, 이은경, 이진아, 장성희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2013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2차 연극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28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8건을 선정하였다.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성 및 성과 집적 여부, 해당 사업이 가져올 파급효과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완성된 레퍼토리를 일회적으로 해외방문 공연하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였다. 새로운 작품의 공동제작,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확대, 사업의 결과가 해당 영역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더불어 해외 협력 파트너의 국제적 신뢰도, 한국연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총회 및 학회 참여 등의 부분도 고려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 파트너의 확정 유무, 사업의 구체성, 예산의 타당성, 신청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예술 역량 등도 두루 고려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연극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1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신청자는 지원 서류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고, 호주의 메츠로아츠레지던스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이 1년여의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 그것의 내용, 효과와 가치 등을 상세하게 피력함으로써 사업 수행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주었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신청인의 창작역량이 강화되고 예술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15(월), 16:00~18: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김서령, 김예림, 김용걸, 박호빈, 최영란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2013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2차 무용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36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9건을 선정하였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우수한 사업이 다수 신청되어 당초의 집중지원 계획과는 달리 배정예산에 비해 다소 많은 9건의 사업을 선정,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신청사업유형과 세부장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예술적 우수성, 해외 협력 파트너(참가자)의 확정유무와 신뢰도,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하였다.

특별히 김경신의 '김경신과 Freddie Opuku Addaie의 협업 프로젝트 Theorem', 오설영의 '인도네시아-한국 무용 국제교류 프로젝트 Field Note' 등이 관심을 끌었는데, 국내 안무가와 해외 무용수들 간의 협업창작을 통해 우리 무용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무용분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3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2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의 경우 한국의 젊은 무용가들에 대한 해외 단체(기관)의 높은 평가와 예년에 비해 향상된 대우가 눈에 띄었으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지원자의 예술적 활동경력, 레지던스 기관의 신뢰도와 수준, 지원자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주요 심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23(화), 18:00~20: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박선희, 윤승현, 채경화, 한방원, 홍승찬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음악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31건이 지원신청 되었고, 이 중 7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사업의 수월성, 기대성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의 필요성, 해외 협력 기관(단체)과의 교류 조건, 그리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민간 및 자체 재원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사업의 지역 안배와 분야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결정이 쉽지 않았다. 특별히, 젊은 예술가들과 기성예술가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젊은 예술가들의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은 총 2건이 지원신청 되었고, 이 중 1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건은 신청사업의 전반적인 구성이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하여 지원결정을 하였으나, 미 선정된 사업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를 잘 반영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젊은 예술가들이 좀 더 많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3차>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사업은 체코 프라하음악원에 작곡가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총 2건이 지원신청 되었고, 이 중 1건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작곡가는 체코 프라하 음악원 측에서 최종적으로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16(화), 10:00~12:00
- 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김승국, 남상일, 원일, 임수정, 힐러리 편침 성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2013년 제 2차 전통예술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총 46건이 지원신청되었고, 그 중 11건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교류 참여예술가들의 예술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페스티벌 참가 및 개최는 물론 학술과 창작음악 교류, 전통음악 공연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되었다.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 중에는 세부내용에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교류하고자하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하거나 일방적으로 한국에서만 지원을 받고자하는 내용, 그리고 사업내용에 비하여 과장된 예산신청, 준비가 덜 된 프로그램 등이 그것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심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일부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우수한 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에는 1 건이 지원신청되었으며, 접수된 1 건을 지원 선정하였다.

지원신청된 사업은 연주자의 안정된 기량과 현지 작곡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창작곡 개발, 그리고 성과 연주회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레지던스 과정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이 지원사업이 잘 홍보되어,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통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다원/예술일반분야 심사평

- 일시 : 2013. 4.19(금), 16:00~18: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 심의위원 : 박인석, 장재호, 조성주 (*이영준, 최재천 책임심의위원 불참)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차>

다원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24건이 신청되었는데 심의를 통하여 최종 7건을 선정하였다. 신청 사업 중에는 ‘다원예술’과 ‘국제적인 예술교류’라는 두개의 키워드가 전제하고 있는 콘텐츠의 미학적, 구조적 성격, 그리고 사업실행과 관련한 고민의 흔적들이 담긴 우수한 계획안들이 많이 있었다. 심의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형식 및 소재의 참신성, 대상 국가의 지역적 다양성과 기대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미디어, 설치 퍼포먼스 창작집단인 프로젝트 잠상의 ‘Faceless City’는 프랑스의 장소특정형 미디어퍼포먼스 창작집단인 ‘콤플렉스 카파나움’과의 공동창작으로 창조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업사이클라운드업의 미디어와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사운드 스케이프’(소리풍경) 탐험 공연은 참여 작가들의 다양성과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에스토니아의 실험공연 페스티벌인 Dimanche Rouge Estonia 2013 참가를 통해 예술적 발전을 위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황의 중국 베이징 청년 연극제 초청 공연과 정금형의 독일 뮌헨의 스피어 아트 페스티벌 초청 공동제작 프로젝트, 헤드쿼터와 Kropka Theatre과의 협업 프로젝트, 폴란드 바르샤바의 마조비아 문화예술관 공연은 각 작가들이 그간 보여주었던 소재 및 형식의 독특함, 예민함, 진지함 등이 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해당 작가들의 창작 영역 확장은 한국 다원예술의 다양한 유형들을 소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메타기획컨설팅의 유목창작여행 프로젝트는 사업의 실행력이 검증된 안정적인 프로젝트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논할 수 있는 국제적인 창작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김형수의 영국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미디어 스킨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공공예술로서의 기여도에 주목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미디어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예술형식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교류의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차>

다원예술 분야의 해외 레지던스 참가지원 사업은 3건이 신청되었으며,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 작가의 작업과 관련한 성취도 혹은 향후의 기여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2건을 선정하였다.

김지연의 MoKS 레지던스와 양민수가 참여하는 Bunnell Street Arts Center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각각 소리작업과, 알래스카를 배경으로 하는 미디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특한 레지던스로, 국제적인 예술창작과 교류의 장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다.

다원/예술일반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